

현대차, 북미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편안한 주행 성능 등도 호평

현대자동차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오를랜드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비영리단체 CTE(The 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2021년 해당 프로젝트의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후 CT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파트너사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힘써왔다.

현대차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엑시언트 수소전기대형트럭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항만 물류 운송에 투입된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 /현대차

(XCIENT Fuel Cell) 30대를 '글로벌비스 아메리카(GLOVIS America)' 산하 트럭 운송 사업자인 'G.E.T Freight'에 공급했다.

이는 북미 운송업체 단일 공급 최대 규모로,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트럭을 대체해 오를랜드 항구 컨테이너 운반 및 리치몬드 항구 차량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yundai Capital America)'는 트럭 운송사에 보다 경쟁력 높은 가격대의 리스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부지역의 트럭 전문 서비스 업체인 'Pape'는 차량

정비 및 서비스를 맡고 있다.

아울러 최근 'FEF(FirstElement Fuel)'가 오를랜드에 하루 최대 200대의 대형 수소전기트럭 충전이 가능한 첫 수소충전소를 완공,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며 현대차는 '수소 인프라 구축 - 수소전기트럭 공급 - 리스 및 금융 서비스 지원 - 차량 운영 -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진정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TE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와 연계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28년까지 디젤 트

럭 대비 약 24,000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활용해 향후 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는 'TAG(Targeted Airshed Grants)' 프로그램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부터 캘리포니아에 수소전기트럭 5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켄 라미레스(Ken Ramirez)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는 현대차의 수소사회 비전 실현에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오늘날 운송업계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성과이며, 항만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토대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전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를 비롯한 미국,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국가에 진출해 수소전기트럭의 신뢰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창호기자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준수·전기차양산 성공 광주글로벌모터스 새로운 도약계기 삼을 것"

GGM 상생 약속 이행 다짐 관련 노조 측 주장에 반박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드린 이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직원들에게는 더 행복한 회사,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조가 생기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드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의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최고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 7월 15일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캐스퍼 전기차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해외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인 만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 시험생산 중인 전기차 성공을 자신하면서 내년 생산량 증가와 시장 확대, 2교대 확대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노조에서 사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선 젊은 노동자에게 미래가 없다며 현장직 초봉이 2천940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기술직 1년 차 초봉은 주거지원비와 격려금 등을 포함하면 3천748만 원 수준으로 노조의 주장과는 8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3년 차 기술직 사원 A 씨의 경우 연간 임금과 사회적 임금인 주거지원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 등을 포함해 4천17만 원 정도다. 또 4년 차 B 씨는 4천9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홍석기자

광주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비는 매달 27만 2천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별 격려금은 연 390만 원씩, 전 사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한 초봉 주장이 실제 임금과 차이가 너무나 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임금 내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또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는 등 현장 통제가 만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작업장에 지게차 이동이나 물품 운반 등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 중에는 휴대폰을 일정 장소에 놓아두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가 기업노조의 간담회 요청과 단체교섭 상건례를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지키며 적법하게 응해왔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떠나는 등 이직률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기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퇴사율은 7.9%로 대기업 8.6%보다 낮았다. 전체 기업 평균은 13.8%며 중소기업은 14.9%다. 퇴사 직원의 이직 기업은 대기업(61%)과 공공기관(7%), 중소기업(32%)이라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최근 우리 회사에 노조가 생기고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주주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회사는 교섭 요구가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따라서 여기서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는 우리 회사 설립의 근거이자 존속의 기반이며 미래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생발전 협정서를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면서 오는 7월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성공시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홍석기자

르노코리아, 임직원 3인 자동차 산업 발전 공로 유공자 포상

르노코리아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 '제21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박동재 디렉터가 산업 포장, 최석찬 디렉터와 김민영 수석디자이너가 장관 포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박동재 디렉터는 지난 27년 동안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품질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산 기술 및 신차 프로젝트 개발 리더를 담당하며 부산공장에 최적의 효율화 된 프로세스를 정립해 차량 양산에서 안정된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신차 프로젝트 기술 담담을 맡고 있는 박동재 디렉터는 올 하반기 선보일 오로라 프로젝트를 부산공장에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이는 부산공장이 르노그룹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 투자를 이끌어냈다.

르노코리아 재무지원 담당 최석찬 디렉터는 회사의 재정적 위기 상황에 치밀한 전략과 실행 능력으로 돌파구



좌측부터 박동재 신차 프로젝트 기술 담담 디렉터, 상희정 부사장, 최석찬 재무지원 담당 디렉터, 김민영 수석디자이너 /르노코리아

를 마련한 점이 주목받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사적인 원가 개선 및 다양한 고성비 최적화 활동을 총괄함과 동시에 채권, 채무, 재고 등 적극적인 현금 유동성 관리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과 개선에 기여했다.

더불어, 지리 그룹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주도해 대규모 외자 유치 성공에도 공헌했다. 또한 최석찬 디렉터

는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 4' 전기차를 2025년 하반기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국산화, 협력사의 전기차 생산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산업의 잠재된 많은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르노코리아 김민영 수석디자이너는

'뉴 르노 아르카나'의 컬러 및 트림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며 한국과 유럽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디자인을 반영한 시장 맞춤형 전략을 성공시킨 바 있다.

김민영 수석디자이너는 중소 업체의 디자인 역량 강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 관계를 통한 소재 개발 진행 등 동반 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창호기자

기아자동차, 'EV3 얼리 체크인' 이벤트 실시

동반 1인 포함 총 4500명 선정

기아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The Kia EV3(더 기아 이 브이 쓰리, 이하 EV3)'를 국내 최초로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소식도 제공하는 'EV3 얼리 체크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금) 밝혔다.

EV3는 2021년 기아의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소형 SUV다.

이번 이벤트는 EV3를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EV3 익스클루시브 프리뷰(EV3 Exclusive Preview)'와 △출시 일정 △시승 계획 △전용 구매혜택 등 EV3 관련 소식을 문자로 먼저 제공받을 수 있는 'EV3 토탈 알림 서비스'로 진행된다.

EV3 익스클루시브 프리뷰는 도슨트 소개 및 자유 관람 등으로 운영되며 △EV 연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 △

Kia360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 △동대구 지점 등 전국 15개의 기아 거점에서 6월 15일(토), 16일(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3회, 회차별로 40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기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다.

기아는 6월 7일 EV3 익스클루시브 프리뷰 당첨자 2,250명(동반 1인 포함 4,500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EV3 토탈 알림 서비스는 응모자 전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인 EV3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는 지난 7일(화)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EV3의 미래 지향적인 요소가 강조된 감각적인 실루엣을 공개했으며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에 기반해 강인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느낌을 전달했다. /이창호기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레이저 기술 인력 육성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돼 레이저 기술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진흥회는 산업부에서 5년간 총 62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레이저기술 전문 인력양성' 과제에 선정돼 조선대·부산대·인하대와 함께 관련 인력을 양성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은 우주항공, 국방, 모빌리티, 2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진흥회를 비롯한 과제 참여 기관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저 및 광학 분야 석박사 학

신 인재 양성을 위해 레이저·광학 특화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270명, 취업률 82%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산학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현장 적용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핵심적인 기술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되는 선순환 인력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광주에서 지원하는 '미래 먹거리 과제 발굴 기획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고홍석기자

한국교통신문 등록일: 2018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다-00284 (주간)
 발행처: 광주 서구 상무중로 114 7층 전화: 062-383-3329 팩스: 062-443-0652
 발행·편집인: 고홍석 E-mail: kjtn973@hanmail.net 인쇄처: (주) 남도프린테크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491-153603 (예금주: 한국교통신문) 구독료: 월 8천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